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자) 사순 제5주일 11:00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김지선 소피아 청소년위원장: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자) 사순 제5주일 (2023. 3. 26.)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37,12ㄴ-14):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13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 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4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 제2독서(사도바오로 로마서 8,8-11):

형제 여러분, 8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9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11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 복음( 요한복음 11,3-7.17.20-27.33ㄴ-45):

그때에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3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4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5 예수님께서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6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머무르셨다.

7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17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20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21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23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24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25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26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27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33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34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35 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36 그러자 유대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37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38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39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40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41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 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42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43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44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45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 미사 전례

### 본기도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 화답송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 복음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리이신 주님, 진리를 찾고 따르려는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언제나 주님 말씀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세상 속에서 모범이 되어 빛과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게 하소서.

2.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이신 주님, 이 땅의 모든 공직자를 이끌어 주시어, 국민 가까이 머물러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각자의 소명을 다하며 공동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소서.

서.

3.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불러 주신 예비 신자들을 보살피 주시어, 진리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의 열정으로 세례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4.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돌보아 주시어, 모든 이가 삶의 터전으로서 아끼고 가꾸게 하시고, 이웃과 희로애락을 나누며 정겹게 살아가게 하소서.

### 영성체 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언제나 그리스도의 지체로 머무르게 하소서.

### ♪ 성가 ♪ (미사곡 바뀐 부분 포함)

입당 : 124 (은혜로운 회개의 때)

봉헌 : 220 (생활한 제물) 221 (받아주소서)

성체 : 160 (하느님의 어린양), 518 (선한 사람 아흔 아홉)

파견 : 280 (성 요셉 찬양하세)

## 공지 사항

### ♣ 사순 시기 전례(기도) 및 의무

- 십자가의 길 :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오라토리오
- 금육제 : 14세 이상, 모든 금요일
- 판공성사 : 사순 시기 매 주일 미사 전

♣ 성주간 동안 로마에서 유학 중이신 박상혁 프란치스코 신부님 오십니다.

♣ 미사후 주일학교 십자가의 길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봉사자

	오늘 주일(26일)	다음 주일(2일)
제1독서	강한 프란체스코	엄기용 안토니오
제2독서	박수정 클라라	장세란 세실리아
복사	이가은 마리아판체아 / 강윤이 스텔라	이준서 마르티노 / 이가은 마리아판체아 / 엄소연 라파엘라 / 엄채운 엘리사벳
계단·화장실	강한 프란체스코	엄기용 안토니오

###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202.07 • 교무금 € 440.-